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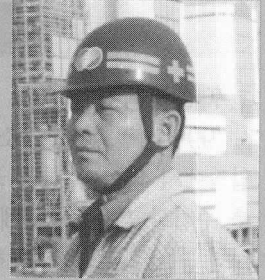


현장 클로즈업

한국전력공사

건설안전의 모태

초일류기업 당진화력건설처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건설처
양 문 호 / 안전관리자

당진화력건설처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대호방조제 일원에 141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연인원 520만명, 총공사비 2조9천여억원을 투입, 50만KW급 4기(총 200만KW)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1995년4월 착공하여 200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미 금년말 준공예정인 1,2호기(100만KW)는 모든 공정 및 시운전을 마치고 준공대비 마무리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일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 현장은 증손자에게 물려줄 최고품질의 환경친화적 발전소 건설을 목표로 모든 공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작된다. 방대한 건설현장에서 매일 수천명의 근로자가 투입되어 부지매립, 부두건설, 항로준설 등 해상작업으로부터 기계설치, 각종 건물 신축, 연돌축조 등 육상 고층 구조물공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단위공사가 열악한 여건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매우 높



아 당진화력 건설현장은 각종 위험한 공사에서 작업 방법을 개선하거나 최신공법을 적용하여 작업상 안전성과 공정상 효율을 확보하고 있다.

□ 최신공법 적용으로 무사고 달성

보일러 내부의 넓은 고소작업 공간에는 커튼식 추락방지망을 개발·설치하여 안전성과 작업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연돌외벽 콘크리트 구조물 축조공사에는 지상 152m까지 콘크리트 거푸집을 자동조립, 해체, 인양하는 Auto Climbing Form System을, 연돌내부 강재설치공사에는 지상에서 모든 조립 및 용접작업을 마친후 연속적으로 인양하는 Bottom up System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난공사를 무사고로 마무리 하였다.

□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

이 현장은 간부급 3명으로 구성된 일일 안전순시조를 편성, 운영하여 작업장 안전시설이나 작업절차를 점검하여 조금이라도 위험이 발견되면 안전지적서를 발부하여 시정후가 아니면 작업을 계속할 수 없고, 매일 순시결과는 익일 간부회의에서 보고된다. 작업상 시급한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누구나 안전메세지를 안전관리자에게 발행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요소에 대한 카메라 고발제도가 시행되어 지적사항은 수시로 현판에 게시되어 안

전수직을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철골설치 등 고소작업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현장에 대하여는 합동 안전상황 감시팀을 구성, 수시로 감시토록 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자체점검반 운영**

당진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은 부두건설 등 해상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각종 건축물, 연돌축조 등 육상 구조물공사에 이르기까지 100개가 넘는 단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고유발 가능성이 많은 단위공사의 철골설치, 가설재설치 현장은 고위급 간부를 반장으로 하는 자체점검반을 편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적출, 시정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70여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도급업체의 안전관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업체는 추락사고 근절을 기본대책으로 자율적인 자체 특별안전활동을 전개하여 '99년도에는 전업체가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작업자는 아침 출근과 동시에 방송과 함께 안전조회가 이루어져 아침체조를 시작으로 인원점검, 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을 마친후 작업장에 투입된다.

또한 안전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추락, 낙하사고예방을 중점목표로 안전기준에 따른 가설재의 설치 등 「건설안전 교육장」을 마련하여 신규투입자는 물론 전근로

자가 손쉽게 건설현장의 위험설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시공업체에게는 자체 안전관리활동의 우수사례를 사진으로 발주처 현관 안전게시판에 게시토록 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전순시자 등의 지적사항은 일일 안전순시란에 지적사진을 부착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모든 안전관리 활동실적은 업체별로 평가되어 기록으로 남게 된다. 또한 분기별 업체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다.

□ **안전보건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당진화력건설처는 발전소 건설 착공이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전소 건설」이라는 사업소 방침에 따라 전직원이 안전관리활동을 전개하여 '98년 6월에는 노동부 무재해기록 3배를 달성하였으며, '99년 7월에는 사업소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0월 1일자로 노동부로부터 초일류기업 인증을 획득하였다. 